

# 인류미래를 향한 책과 영상의 미학

## 천대받던 원작 SF소설을 영화화해 성공 거두기도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흥행이나 작품성에서 성공을 거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원작이 이미 사회적인 미학을 창출해낸 경우, 영화가 그 이상이나 혹은 그에 근접한 성공을 거두기는 더욱 힘들다. 그러나 지명도를 획득하지 않은 원작소설을 영화화해서 평단이나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가 SF물들이다.

책으로 출간되어 서점 귀퉁이에서 천대를 받았던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 불후의 명화가 되는 경우에서부터 발표된 지 50년이 지난 소설이 20세기 최고의 걸작 영화가 되는가 하면, 원고지 100매도 안되는 SF단편 소설이 대작 영화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 원작을 넘어선 영화

영화전문가들이 세계영화사에 남을 걸작을 꼽을 때 SF영화로는 유일하게 거론하는 영화가 있다.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우주 오디세이》(2001, space odyssey)이다. 이 영화의 원작은 아서 클라크가 1951년에 발표한 짧은 단편소설 《영원의 파수병》(Sentinel of Eternity)이었고, 지은이 아서 클라크는 당시에는 무명의 신예작가에 불과했다.

인류가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시작하기 60년전에 제작된 영화 《2001년, 우주 오디세이》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천재 감독의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세계 영화계에

파란을 몰고 왔다. 휴머니즘과 테크놀러지의 대결이라는 미래 인류가 겪을 도덕적인 딜레마를 주제로 삼은 것도 그렇고, 인간과 컴퓨터의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짧은 소설을 특수효과와 음향효과를 이용, 대서사시로 만들어낸 것 또한 그랬다. 실제로 그는 소설 전체를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음악으로 슈트라우스의 관현악을 사용했다. 큐브릭은 소설이 채 건드리지 못한 인간의 의식 혹은 사고행위의 근원을 영화적 장치들을 사용해 가능하게 했다.

영화가 개봉된 직후 원작자인 아서 클라크는 원작의 분량을 늘리고 내용을 영화와 비슷하게 바꾼 소설 《2001년: 우주 오디세이》를 17년만에 다시 출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존 영화감독 중 연출의 귀재로 이름이 높은 리들리 스코트는 서점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두 편의 SF소설을 영화화해 대성공을 거둔 감독이다. 그가 만든 두 편의 SF명작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와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은 출간 당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필립 K. 딕의 《인조 인간은 전기양을 꿈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였다. 이 작품 역시 전형적인 SF소설로 인간과 인조인간인 안드로이드의 싸움과 인간의 영역을 넘보는 안드로이드를 처단하는 블레이드 러너의 활약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리들리 스코트의 영화는 미래 인류가 테크놀로

지에 의해 저지르는 가치기준의 혼돈,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만들어냈다. 탈출한 4명의 안드로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전문 블레이드 러너인 헤리스 포드가 그들과의 조우를 통해 얻는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끊임없는 회의이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모든 SF영화의 일반론을 뒤집는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리들리 스코트가 50년동안 묻혀 있던 알프레드 엘튼 반 보그트의 단편 SF 소설 《주홍빛 불화》(Discord in Scarlet)를 영화화한 작품 《에일리언》 역시 SF의 걸작으로 꼽힌다.

1939년 발표된 원작을 외계인 에일리언의 이미지만 남겨둔 채 각색해서 제작한 영화 《에일리언》은 본격 SF영화의 효시로 기계가 아닌 생물체인 ‘인류의 적’이 등장한다. 연출의 귀재 리들리 스코트는 인류가 겨우 근대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한 작가에 의해 창조된 ‘에일리언’이라는 외계인의 캐릭터에 흠뻑 빠져들었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설의 우주선 비글호의 영웅 리플리는 남자이고 영화의 우주선 노스트로모호의 리플리는 여자라는 것뿐이다. 처음 이 영화가 1979년 공개되었을 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이 50년전 한 소설가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영화를 본 원작자가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 결국 리들리 스코트는 5만달러의 원작료를 지불했다. 《에일리언》의 원작이 《주홍빛 불화》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 깊이있는 주제로 승화

1966년 미국 NBC TV에 이젠 고전이 되어버린 SF드라마 하나가 탄생한다. 미국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을 선진적으로 바꾸는 데 학교교육보다 훨씬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스타트랙》 시리즈가 시작된 것이었다. 시리즈 중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영원의 끝에 있는 도시》(The City On The Edge of Forever)는 젊은 SF작가 할란 엘리슨이 쓴 동명의 짧은 에피소드를 각색, 전문가와 연출자인 진 로텐베리가 영상에서

극대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재창조한 것이다. TV용 원작이 지니는 단점인 과학적 논리묘사의 부족을 사회적 상상력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 드라마는 이후 원작자 엘리슨이 미국의 대표적인 SF작가가 되는 기록제가 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성공을 거두자 원작자인 필립 K. 딕의 다른 소설을 영화화하려는 여러 감독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실을 거둔 것이 90년에 막대한 제작비와 일급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동원해서 만든 《토탈 리콜》(Total Recall)이다. 영화평론가들로부터 포스트모던 논쟁을 이끌어내며 호평과 악평을 함께 받고 있는 이 영화는 《기억을 값싸게 구입합니다》(We Can Remember It For Wholesale)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고도의 물질문명 사회에서 미립자화하는 인간군상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의 주제는 액션의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인 것을 제외하곤 영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자로서 작가가 보여준 미래사회 인간 정체성의 탐구정신을 영화는 상업성과 결부시키려고 한 듯하다. 생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 필립 K. 딕은 이 두 편의 영화로 세계 각국의 SF서적 코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군림하고 있다. 국내에도 그의 작품들은 다른 SF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출간되어 있고, 《기억을 값싸게 구입합니다》는 최근 SF영화들의 원작소설을 모아 펴낸 선집 《SF 시네피아》(서울창작)에 다른 원작소설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책의 미래를 ‘영상의 원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책과 영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존할 것이라는 예견을 부정하는 사람 또한 드물다. 그러나 책의 미학과 영상의 미학은 분명히 다르다. 철저하게 작가와 감독의 역량에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이다. 선발주자인 문학이 쌓아올린 업적에 못미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거론된 SF영화들처럼 문학이 성취하지 못한 거대한 사회성을 영화가 이뤄낸 경우도 있다. 결국 책과 영화는 ‘문화’라는 언방에 함께 소속된 각기 다른 자치주인 셈이다.

— 허연 기자



《토탈 리콜》 중 한 장면.